

2021전태일기념관지원사업선정작

공정  
작업  
21

# 파란풍선 — 아라발 3부작

*Fernando Arabal Trilogy*

미궁, 사형수의 자전거  
그리고 게르니카



2021.10.23 -  
10.31

평일 19:30  
주말 16:00  
※월요일 공연 없음 / 티켓 무료

전태일기념관 2층 올림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05  
문의: 전태일기념관 02-318-0904  
관람예약: [www.taeil.org](http://www.taeil.org)

원작 페르난도 아라발  
번역 김미라  
연출 황이선  
조연출 김승덕  
조명 김용호  
무대 김혜지  
음악 류승현(RAINBOW99)  
오퍼레이터 양경진

출연  
김세중, 문병주, 박지은  
이의령, 위다운, 정다연, 한철훈

# 파란풍선 — 아라발 3부작

Fernando Arabal Trilogry

미궁, 사형수의 자전거  
그리고 게르니까

## 시놉시스

현대 부조리극의 대가 페르난도 아라발의 작품세계가 잘 드러난 '미궁', '게르니까', '사형수의 자전거' 3부작은 예술의 치유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을 선보이는 공연이다.

### 미궁

아무리 도망쳐도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며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공간 미궁을 무대로 하여 자유를기 위해,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상의 과정을 그려낸다. 탈출 후 발목에 남아 있는 족쇄의 흔적은 미궁의 존재를 계속해서 의식하게 하며,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 사형수의 자전거

'음악'이라는 꿈을 간직한 남자 비로로를 동료 죄수들은 짓밟고 손발을 묶어 피아노 연습을 방해한다. 하지만 비로로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게 파란 풍선을 건네주는 여자 따스라가 있다. 그들은 자유와 희망을 꿈꾸지만 꿈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음악은 사치일 뿐이다.

### 게르니까

나치의 폭격으로 인해 마을 주민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게르니까 마을의 비극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무너지는 집을 지탱하는 부부의 모습이 보인다. 남편은 아내에게 뜬금없는 주제로 말을 걸고, 서로의 목소리에 의지하며 두려움을 버텨낸다.

## 만드는 사람들

작. 페르난도 아라발  
번역. 김미라  
연출. 황이선  
조연출. 김승덕  
조명. 김용호  
무대. 김혜지  
음악. 류승현 (RAINBOW99)  
오퍼레이터. 양경진

## 배우

김세중, 문병주, 박지은,  
이의령, 위다은, 정다연, 한철훈

## 문의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02-318-0904)